

기능경기대회 전북 선수단 선전

금메달 3개 등 18개 메달 획득 종합 10위 전국대회서 지역 위상 높여... 내달 표창

전북도가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 등 18개 메달로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11일 막을 내린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실내장식 분야에서 금메달 수상자를 지도한 김철수 씨는 수상 소감에서 "2015년부터 3번째 연속 출전하였으나 이번이 0.1점차로 메달획득에 실패해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올해는 법무부 직업훈련소 소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의 협조와 도에서 전략지종으로 선정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을 뽑는 기능인들의 축제인 제52회 전국기능

경기대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메달 수상자는 폴리메카닉스 분야에서 전북기계공고 이은유 학생(19세), 화훼장식 분야에 양진용(27세) 씨, 실내장식 분야에 법무부 재소자 A씨가 영광의 금메달을 수상했다.

법무부 수용 중에 직업훈련소를 통해 실내장식(건축목공) 분야에서 꾸준한 작품을 만들어온 재소자 A씨(51세)는 이번 금메달 수상을 계기로 출소 후에도 실내 건축인테리어 분야에 취창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자동차 차체수리분야

에서 전주공고 오인성(은), 한지호(동) 학생이 입상, 자동차 페인팅 분야에 영선고등학교 김건웅(은), 김도훈(우수) 학생이 입상하는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헤어디자인 분야에 유승하(은), 의상디자인 허인순(은), 석공예 이운섭(동), 도자기 분야에 윤석만(동), 박훈원(동)씨가 입상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메달획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전주공고,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한국게임과학고, 영선고 등 지역의 학교에서 다양한 직종의 입상자를 배출하여 지역의 숙련기술의 위상을 높였다.

전국대회 입상선수에게는 한국위원회에서 금메달 1,200만원, 은메달 800

만원, 동메달 400만원, 우수상 100만원~50만원이 지급되며, 입상선수 지도교사에게는 전라북도위원회에서 격려금으로 금메달 1,000만원, 은메달 600만원, 동메달 400만원, 우수상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회 상위 입상자는 선발 경기를 거쳐 2019년 러시아(카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입상선수 지도교사에게는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지며, 10월 중에 전국대회 참가선수 해단식을 통해 전북의 위상을 높인 유공자에게 표창 및 시상식이 실시될 계획이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국대회 참가를 대비해 훈련에 매진해 주신 선수와 지도교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진성 기자

학교폭력 끝은 자살... 교육청은 뭐했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서 방과후 돌봄교실 부실운영 및 여중생 자살사건 대응과정 질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가 7일 임시회에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최근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 등을 지적하며 "학교내 안전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학교내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화할 것과 일부 위탁 방과후 돌봄교실의 부실운영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전주 모 중학생 자살사건 대응과정을 보면 학교폭력 관련 상담과 학생지원 등 거의 대부분 Wee센터에 맡겨두고, 학교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없었다"며 "위기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Wee센터는 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치료활동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재원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시로 변경

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이월금이 많음에도 추경에도 시설사업비를 많이 편성했다"며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명박 정권 때 납탈된 민자학교 등으로 매년 150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시설사업을 이월사업하지 말고,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추경편성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이루어진 점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시설공사는 추후 교육청에 관련 시설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학교들의 안전과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좋지만, 현재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결국 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져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하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도의회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 국제행사 유치 선진지 벤치마킹 여수시 방문 엑스포 견학

전북도의회(연구대표 정호영, 김제1) 의원 연구단체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 위원들이 9월 8일(금), 여수시를 방문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유치와 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여수엑스포재단 관계자로부터 엑스포 유치과정 및 행사 후 엑스포장 유지와 활용에 관한 사례를 정취하고 스카이다이, 컨벤션센터, 엑스포 기념관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호영 대표의원은 "여수엑스포는 유치뿐 아니라 사후관리와 운영에도 성공한 우수한 사례이다"며,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배운 점들을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수엑스포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행사 후 엑스포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잼버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전라북도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회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는 행정자치위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1년간 활동을 하며, 전라북도의 외교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성수품 원산지 속이면 벌금 최대 1억원

29일까지 도·시·군 합동 미·허위 표시 특별 단속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2일~ 29일 까지 실시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전북도, 시·군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조기, 방어 등 제수용 수산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커서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생산지 혼합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성 확인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미표시에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올 한해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 628개 업소를 대상으로 68회에 걸친 지도·단속 결과 16건(미표시 10건, 허위표시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했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 표시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수산업경영인대회 도내 후계자 320명 출사표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 종합운동장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전국 수산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2박3일) 경남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경남도, 거제시, 수협중앙회 후원으로 전국 12개 광역시·도, 67개 시·군 산

하 수산업경영인가족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산업경영인 등 320여명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군산 80, 고창 130, 부안 80, 정읍,김제 30)

주요행사로써는 첫째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자재 전시, 학술행사(성공사례발표 등), 체육대회 등이 치러지고, 둘째 날은 산업시설 견학, 치어 방류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은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부대행사로써는 우수기자재 전시회, 수산

물 직거래행사, 지역특산물 판매, 푸드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행사와 수협 수산금융상담코너 등도 마련된다.

수산업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어업인 들의 유일한 행사로 전국대회(홀수년도)와 도대회(짝수년도)로 개최되며, 도에서는 2011년에 제8회 전국대회를 군산시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제7회 전라북도수산업경영인대회를 군산시에서 수산업경영인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성황을 이룬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